

제목: "우리에게도 주신 요셉의 축복"

말씀: 창세기 49장 22-26절

요셉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축복이었다고 여기지 못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축복입니까?

1. 담을 넘는 _____의 축복입니다. (22절)
2. 도리어 _____ 되는 축복입니다. (24절)
3. 다음 _____를 향한 축복입니다. (25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사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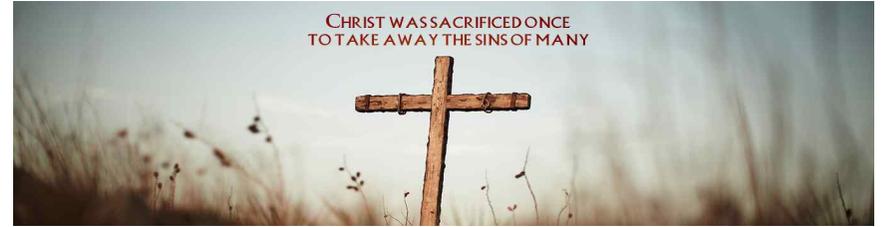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창세기 49장 22-26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Genesis 49: 22-26 구약 79 페이지 Presider
- 말씀 "우리에게도 주신 요셉의 축복"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특순: 김문홍, 서주영)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보라 너는 두려워 말고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용서의 회복)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며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요셉은 오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 받은 꿈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다. 또한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다.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용서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 요셉을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품고 살아가야 할 마음을 알려주신다.

그러나 만일 요셉이 미움을 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요셉이 될 수 없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그럴 확률이 높았던 사람이었다. 부유한 가정의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는 막내로 자랐던 사람이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더 받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누구보다도 버릇없고 자신 만 알며 자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요셉은 좋은 옷을 입고 편애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교만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살 수도 있었다. 또한 형들과 관계 가운데 미움을 키울 수 있었고 하필이며 보디발의 집에서 살면서 그 마누라의 능청에 괴로워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다. 감옥 생활 가운데 미움을 키우고 나라의 일을 맡으며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커진 미움을 복수도 할 수도 있었던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미움을 키우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가장 미워할 수 있었던 가족을 용서했다. 그 이유는 그에게는 가족의 미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 한국에 있었던 이태원 사고를 매일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는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들은 치유와 회복의 소식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다. 기다리더라도 했듯이 너 나를 막론하고 손가락으로 공방전을 벌이는 듯하다. 어떻게 보면 회복과 위로 그리고 용서와 사랑은 볼 수도 들 수도 없는 때에 있는 것 같다. 왜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꿈이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오히려 가족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라고 보내신 것이라는 용서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살지 않아서이다. 이것은 매우 크고 힘든 것 같으나 한마디로 이야기 하자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서로 원망과 손가락질로 미움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으로 서로를 죽이고 밟는 것이 속이 후련해지는 회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힘든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 속에 확인하게 된다. 그 때에 회복과 위로가 쏟아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와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사야 88장 13-14절)이라고 하셨다.

회복과 위로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임철현, 임운실 선교사: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회복의 사역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11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실크웨이브 선교회 책자

실크웨이브 선교회 책자가 도착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6. 추수 감사주일 식사

올해 추수 감사주일(20일)에는 예배 후 이석순 장로님 댁에서 모두 함께 친교하며 식사합니다. 미리 다른 약속을 잡지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